

## 출산 전후 여성의 정서 상태와 사회적 지원\*

-단기 종단적 연구-

나 종 혜\*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 부교수)

현 온 강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Charles M. Super · Sara Harkness (Univ. of Connecticut)

최근 국내에서 출산 기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되면서 급속히 노령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임신부와 신생아를 둔 출산 직후 산모들을 대상으로 생리적인 측정 을 통하여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면접을 통하여 이들의 정서 상태와 사회적 지원 정 도를 알아보아 실제로 출산 전후 여성들이 어떤 정서 상태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임산부의 정서 상태가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보고되어 왔다.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로 정서 상태가 급변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임산부의 정서상태는 주로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고 알려져 왔는데 특히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수치는 임산부의 정서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임신 후반부에 접어든 임부 18명으로 8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출산한 후 2주까지 단기 종단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미리 충분히 숙지하게 한 후 동의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주변의 임신한 사람들을 또 소개받는 snowball 표집법을 통하여 대상을 모집하였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대상자의 타액에서 검출하 였는데 이를 위하여 대상자들이 임신 8개월 때와 출산 후 2주가 되었을 때, 아침, 정오, 오후, 저녁 4차례 에 걸쳐 이들 동안 특수용기에 타액을 수집하여 전문 분석회사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한 편, 반 구조 화된 면접을 통하여 어머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상자들의 부신 피질 호르몬 수치를 반복측정에 의한 nested 실험 설계법으로 비교해 본 결과, 이미 보고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부신 피질 호르몬 수치는 임신 8개월 때 높아졌다가 아기를 출산한 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중 아침에 부신 피질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았고 저녁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임신기 여성들은 남편을 가장 든 든한 사회적 지원체제로 꼽았으나 출산 후에는 친정어머니와 같은 친정 식구나 신생아 양육 경험이 있 는 사람의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2-C00139).